

# 완주 사계절하우스 토마토 첫 출하

### 농진청, 첫 도매시장 출하·시장평가 진행

### 평가결과 바탕 고품질 생산 재배기술 보완키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여름철 생산이 어려운 토마토와 장미 등 원예 작물을 완주의 고온극북형 온실(이하 사계절하우스)에서 생산해 도매시장 출하와 시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농진청은 지난 15일 올해 생산한 토마토의 첫 도매시장 출하와 시장평가를 진행했으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수요에 맞춘 고품질 생산 재배기술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토마토는 시설 하우스 내 고온으로 인해 여름철 생산이 어려워 80% 이상이 고랭지에서 생산되며, 올해 첫 출하한 토마토(데프니스 품종)는 고랭지산(철원) 최상품과 비슷한 품질 평가를 받았다. 다만, 꼭지를 길게 잘라 유통과정의 상처가 발생해 경매가가 5kg 상자에 고랭지산 2만 8,000원~3만1,000원보다 약간 낮은 2만1,000원~2만8,000원으로 형성되는 등 품질별 품질차이와 수확 후 유통에 대한 기술적 보완사항도 확인돼 개선하기로 했다.

작년부터 농진청에서는 여름철 고온기 농작물 생산이 곤란한 우리나라의

시설재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 비닐하우스에서 작물생산을 실증하고 있다.

이는 선진 농업인이 여름철에도 작물을 생산이 가능하도록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설치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과학적 검증과 적용기술 보완을 통해 보급형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온실을 설치해 가장 먼저 실증한 장미는 같은 면적의 일반 하우스에 비해 약 2배 이상 수확량이 많고, 품질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출하한 장미는 굵기가 크고 품질이 우수해 1송이당 1,447원을 받아 일반 장미(평균 617원)보다 약 2.3배 높은 가격을 받았다.

딸기의 경우는 기존 재배방식보다 약 1개월 빠른 10월 중순부터 딸기 수확이 가능함을 확인했지만, 수확기 연장을 위해 연속 꽃눈분화와 환경조절 기술 등 재배기술관련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동시에 수확이후 품질 유지를 위한 관리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사계절하우스에서의 토마토 재배 모습.

또한 올해에 추가 설치한 온실에서 실증한 파프리카는 지난 7월말 첫 출하해 전문가 평가를 받아본 결과, 고랭지산 파프리카에 비해 식감 등 품질은 대등하나 시장수요가 많은 중소과 비중이 낮아 기술보완을 진행 중이다.

농진청은 과학적 검증과 적용기술 보완을 통해 사계절하우스의 경제성을 높이고 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된 내재해 규격을 갖춘 보급형 모델을 2021년까지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계절하우스에 적합한 다년생 작물을 포함한 다양한 품종의 재배 실증과 함께 재배 매뉴얼(안내서)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황정환 원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한여름에도 신선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내재해성과 경제성을 갖춘 새로운 유형의 온실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한국이 네덜란드를 넘어서는 시설재배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윤상 기자

## 고객 눈높이를 맞춰라

JB금융지주 전복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온택트 시대를 맞아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복은행, 온택트 시대 맞아 소통 확대 위해 유튜브 채널 개편**  
**'신이나'·'JMT'·'JB스토리'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돼**

으로 더 따뜻한 세상' 등이 있다. 이처럼 다채로운 콘텐츠 영상을 준비해 고객에게 한 걸

은행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어려운 금융업무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고, 친근한 은행의 이미지를 목표로 재미를 추구하는 콘텐츠로 채널을 구성했다.

은행의 유튜브 채널 구성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는 '신이나(신용등급 이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북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JMT(전복은행 맞춤 집 투어)' ▲일반인이 알기 힘든 은행 이용의 숨은 팁을 소개하는 'JB스토리' ▲전복은행의 문화활동 소개 'JB문화공간' ▲전복은행의 사회공헌 활동들을 소개하는 '금융

을 더 다가가는 은행을 목표로 하고 고객들과 지점 밖에서도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환경에서도 고객에게 힘이 돼 줄 수 있는 소통창구의 역할로서 유튜브 채널을 더욱 활성화 할 것이다"며 "고객에게 재미를 드리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복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의 방문 및 시청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 또는 애플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유튜브뱅크(App)를 다운로드 받은 후 '전복은행'을 검색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전북농협, 올해 벼 수확기 대책회의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대회의실에서 2020년 RPC운영 전북협의회 벼 수확기 대책회의를 갖고 올해 수확기 수급상황과 원활한 벼 매입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RPC운영 전북협의회 조합장 21명,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주 과장, 전북도청 정귀만 팀장, 양곡부 최선식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벼 매입자금 적기 지원,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가 출하 희망량량 최대한 매입, 벼 매입 농협 RPC간 협력체계 강화, 전북 쌀 판매확대를 위한 협의 등 수확기 원활한 벼 수매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성일 본부장은 "긴 장미와 태풍으로 벼 병해충 확산과 도복 피해가 많았지만 전북농협 전 임직원인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감사하다"며 "수확기에 공공 비축미곡 뿐만 아니라 자체 벼 매입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북농협도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양곡사업 발전을 위한 숙원사항 발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추석 앞두고 불비는 도매시장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며칠 앞둔 21일 새벽 전주시 농수산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이 추석 대목에 판매할 과일을 구매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한농대, 내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진행

### 농수산인재·도시인재·일반전형 등으로 570명 선발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이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해 9월과 10월 수시모집 전형별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한농대는 매년 수시모집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수시모집에는 농수산인재, 도시인재, 일반전형이 있다. 모집정원은 전년(560명)보다 20명 늘어난 570명이며, 청년 창업농 육성 등을 위해 도시인재전형 모집정원을 99명으로 확대했다.

신입생 모집은 농수산인재전형 114명(20%), 도시인재전형 99명(17%), 일반전형 357명(63%) 3가지 전형으로 570명을 선발한다.

농수산인재전형은 농수산 계열 고등학교와 농어촌(읍·면) 소재 고등학교 출신(재학생,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는 23일 오전 9시부터 10월 12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www.jnhakapply.com)으로 진행한다.

도시인재전형은 특별·광역시, 시 및 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 지원 가능하며, 원서접수 일지는 농수산 인재전형과 동일하다.

일반전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학생, 고교 졸업 학력 인정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19일 오전 9시부터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 앞서 진행된 전형과 동일하게 인터넷으로 진행한다.

2021학년도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는 농수산인재 및 도시인재전형의 경우 교과영역(40%)과 서류평가(35), 면접(25)점수를 합산해 선발하며, 일반전형은 학생생활기록부(60%, 교과영역+출석)와 영농·영여가반(15), 면접점수(25), 가산점 등을 합산해 선발한다. 특히, 농수산인재와 도시인재전형에 지원한 사람은 일반전형에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한 만큼 해당 전형의 지원자는 이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한농대 관계자는 "지난해 신입생 모집에서 개교 이래 가장 많은 2,274명이 지원해 평균 4.13: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취업난으로 어려운 청년층이 농·수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한농대의 인기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도정할 지원자는 전형별 원서접수 일자와 전형 간 중복 지원 가능 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원서접수를 진행할지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수산대학은 농·수산업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1997년 개교한 3년제 전문대학으로 약 1,600여명의 재학생이 현장 중심의 실무·실습 교육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5,55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들 졸업생들은 농·수산업에 종사하며, 가구 평균 8,999만원(2018년 기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애플 '프리스비' 롯데백

### 전주점에 24일 오픈

전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롯데백화점 전주점 1층에 애플 공인 리셀러숍인 '프리스비'가 24일 문을 연다.

애플 체험형 스토어를 통해 애플 전 제품은 물론, 다양한 트렌드 IT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또 맥, 아이패드, 아이폰, 애플 워치, 에어팟 등 애플 제품에 특화된 전문직원을 통해 1대 1 교육 및 솔루션도 받을 수 있다.

전주점 오픈을 기념해 당일인 24일부터 4일간 매일 선착순 20명에 한해 에어팟 전 모델(프로 2세대)과 아이폰 전 제품의 정품 케이스를 20% 할인가로 판매한다.

또 이달 안에 애플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최대 15만원 상당의 혜택을 준다. /뉴시스

## 하림, '한판 닭불고기 간장맛·고추장맛' 출시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이 프라이팬에 속 들어가는 크기의 '한판 닭불고기' 간장맛과 고추장맛 2종을 출시했다. 부드러운 닭고기 순살을 얇게 썰어 양념한 제품이라 프라이팬이나 석쇠에 굽기만 하면 맛있는 닭불고기를 즐길 수 있다. 최근 jtc 예능 프로그램 '육자회담' 닭고기특집'에 소개돼 화제를

모았던 '정승 닭불고기' 레시피에서 착안해 만든 신제품이다.

'한판 닭불고기'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닭고기를 35℃ 이하에서 40분간 개별 급속 동결하는 IFF(Individual Fresh Frozen) 기법으로 갖 잡은 닭의 신선함을 그대로 담았다. 양 조간장, 양파, 무, 마늘, 사과, 배등을

같이 넣어 순하고 깔끔한 간장맛과 국내산 고춧가루로 양념해 깔끔한 고추장맛 2종이 있다. 두 제품 모두 밥 반찬은 물론 술안주로도 매력적이다.

조리방법은 간단하다. 따로 해동하지 않은 제품을 프라이팬에 올린 다음 약간의 물(80ml, 종이컵반컵)을 붓고 7~8분간 가열하면 된다. 기호에 따라 양파, 파, 당근 등 각종 채소를 넣으면 더욱 풍성하고 맛있는 닭불고기를 즐길 수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 '이번 추석엔 달러를 선물하세요'

**NH농협은행 전북본부**  
**'감동! 외화선물하기' 애용**  
**개인고객 대상 이벤트 진행**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올인뱅크 전용 서비스인 '감동! 외화선물하기'를 이용하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이번 추석엔 달러를 선물하세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동안 NH농협은행에서 '감동! 외화선물하기'로 외화를 선물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한우선물세트, 농촌사랑 모바일상품권 등 총 24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NH농협은행 공식 SNS계정(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는 '감동! 외화선물하기' 관련 키워드를 맞춘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스타벅스 카페라테 기프트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



한다. '감동! 외화선물하기'는 상대방의 성명과 휴대폰 번호만 알면 USD10부터 USD500까지 외화(USD, JPY, EUR, CNY)를 선물할 수 있는 올인뱅크 전용 서비스로, USD, JPY, EUR는 90%, CNY는 40%까지 환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전북 조출생률 '호남 꼴찌'

### 4.9명으로 광주·전남 각각 5.8명, 제주 6.8명보다 낮아

지난해 전북지역의 조출생률이 호남권에서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조출생률이 최대로 떨어지며 전북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21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2019년 호남 제주 출생 현황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조출생률은 4.9명으로 호남권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광주(5.8명)와 전남(5.8명), 제주(6.8명)를 비롯, 전국 평균(5.9명)과 비교해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조출생률이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한다.

더욱이 전년도에도 호남권 꼴찌였던 전북의 조출생률은 지난해 전년대비 0.6명이나 떨어지며 광주(-0.5명), 전남(-0.2명), 제주(-0.5명) 및 전국 평균(-0.5명)과 비교해서도 가파른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 감소도 전북이 1,000명으로, 광주(-700명), 전남(-400명), 제주(-300명) 보다 많았다.

이와 함께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에서도 전북은 0.97명을 기록하며, 광주(0.91명), 전남(1.23명), 제주(1.15명), 전국 평균

(0.97명)과 비교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 역시 전북의 인구수 감소폭이 타 시도에 비해 가파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전국에서 전년대비 같은 10위를 기록했는데, 대도시가 없는 전북지역이 전남, 제주, 충남, 경북, 경남, 충북, 강원 등이 있는 중소도시와 시골지역에서도 최하위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대도시권 합계 출산율은 전북보다 저조했지만, 공무원이 많은 세종시와 대기업 직장인 비율이 많은 울산시는 전북보다 합계 출산율이 높았다.

반면, 지난해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1.23명(전국 2위)으로 전국 평균(0.98명)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전국 시군구 합계 출산율 순위에서도 전남 영광군이 1위, 해남군이 2위를 차지하는 등 인구 감소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2019년 전남의 합계 출산율 하락폭도 전년대비 -0.1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출생아 수는 호남권에서 가장 많은 1만 800명을 기록하기도 해 전북과 크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윤상 기자